# "사법 개혁" vs "대여 투쟁" 여야 극한 대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화영"···한국당·바른미래 "국조·특검 추진 공조" 교섭단체 대표 연설・국정감사 등 9월 국회 차질 우려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고 있다. 여기에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 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 간 의 충돌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국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일전의 각 오를 밝히면서 검찰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 고 있는 반면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 른미래당은 "정권 몰락"을 경고하면서 전 방위적인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특 히 야당이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 사, 특검 추진을 놓고 본격적 공조 방침을 밝히면서 추석 연휴 이후 시작하는 정기국 회 일정에도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임명 발표 직후 검찰 개혁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사 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새 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조 장관 임명에 앞서 열 린 최고위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신 발 끈을 조이겠다"면서 "문 대통령의 인사 권 행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자세로 심기일전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권력기관 개혁 등 을 통해 개혁 정책 동력을 살리면서 악화 된 여론을 수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 다. 여기에는 사법개혁 이슈를 포기할 경 우 정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고 려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조 장관 인 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입시 논란이 젊 은 층의 이탈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입시제도 개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조 장관 임명 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 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 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미 해임결의안 과 국조, 특검 추진 등도 예고한 상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문재 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라고 밝혔 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 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끝내 국민과의 정면대결을 선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하고 향후 대여 투쟁에 대한 공조방침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구두논평 에서 "여러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조 장관 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 고 지적했으며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 대변인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해 소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 하겠다"며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 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 다. 정의당은 야당 가운데 유일하게 조 장 관에 대해 적격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야권이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 (17~19일) 및 국정감사(9월30~10월 19일) 등의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 가피할 전망이다.

국조와 특검 등을 놓고 대치가 길어지면 연말 예산 국회의 진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檢,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지휘한다

### 경찰 18건 전체 송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 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 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 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 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B(테라바이 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000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아직 소환 조사 를 하지 않은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14건은 검찰과 협의한 끝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4 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기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단 사건은 자유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 욕했다는 고발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 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 다는 내용의 고발건, 이런 사태에도 불 구하고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 발건 등이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총 121명을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경찰은 증거 자료 분석이 먼저 끝난 순서대로 수사 대상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해왔으 며 지금까지 소환을 통보받은 국회의원 은 98명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 며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靑 "반칙·특권 없는 병역문화 조성 노력"

###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 답변

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 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병역 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 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11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한 달간 25만9000여 명이 참여했다. 유 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 역 회피 의혹을 받고 한 달 뒤 법무부로 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유 씨는 2015년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 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 를 신청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소 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7 월 11일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 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 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 의해 출입국관리법을 검토한 후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 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조국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완수"

### 법무장관 취임식···"개혁의 법제화·감독기능 강화"

바로 삽니다, 맹지 사절

문의. 010-6834-7400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 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개혁 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법무부 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법무부의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 작업 을 계속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조 장관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 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 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 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 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 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 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 혀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면서도 검찰 수 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취임식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

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법무부는 소속 직원들에게도 취임식에 참석하라는 공지 를 하지 않았다. 취임식 10분 전까지도 취 임식장에서 장관을 기다린 법무부 직원은 10여명에 불과했다.

서 법무부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

법무부 관계자는 "낮은 자세로 임한다는 마음으로 취임식 행사를 최소화하기로 했 다"고 말했다. 검찰 기관장 중에서는 김영 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 장은 불참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인사 차 만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윤 총장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이같은 취임 인사도 생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박상기 "검찰 개혁 미완 … 과제 많다"

### 전 법무부 장관 퇴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 기관으로 남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라 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는 퇴 임사를 밝혔다.

박 전 장관 퇴임식은 오후 3시 정부과 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2년 2개월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박 전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국 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 직 이뤄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고 아 쉬움을 표했다. 또 "국민을 위해 봉사하 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 다"며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 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 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 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전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의 문 제점은 인권 관점에서 하루속히 개선돼 야 할 대표적인 예"라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 /연합뉴스

###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 230-7700-2(010-5613-1808)

# 금당공인중개사

###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대지 440㎡ 주택 53㎡ 조용한 생활 최적합 4500만원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등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400만원

### 투자·매도·교환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접 땅 48900㎡ 펜션 14개와 수영장 토지 2천여평은 복지병원 등 적합 휴게소·무인텔 적합 교환가능 3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11607㎡ 투자에 좋음 농협 1억5천 매도 3억6천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서동 상가와 13가구 허가지역 땅 342㎡ 매도 4억3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량리) 6645㎡ 조망좋음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 상가건물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청정지역 땅 1372㎡ 펜션적합 건평 269㎡ 계약 7억5천 매도 4억 6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 신축 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특급물건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2466㎡ 펜션 2동 은행 등 2억 급매 3억6천
- 영암 학산면 영산강접 산 97404㎡ 감정 8억4천 은행 등 5억8천 사찰도 적합 3천만 요양시설 최고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가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종 주거지 답 4413㎡ 축협 2억4천 투자에 좋음 4억4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고려조선㈜M&A 공고

# ा ॥ ८

① 회사 개요: 광주지방법원 관할 회생회사로 FRP 및 강선 선박 건조와 수리업 등 을 영위함

② M&A 방법: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

③ 입찰 방법: 공개경쟁입찰

### 2 M&A 진행 일정

① 인수의향서 접수

- 접수기간: 2019년 09월 24일(화) 15:00까지 (대한민국 서울시간) • 접수장소 : 일우회계법인
- [광주광역서 서구 상무대로 1071(화정동 783-20) 대광빌딩 6층] • 제출서류: 인수의향서 및 관련 부속서류

# ② 예비실사를 위한 자료 제공

- 인수의향서 제출 및 소정의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잠재투자자에게는 회사 소개자료(IM) 등의 자료 제공과 Q&A 등의 기회가 부여될 예정임. ③ 예상 업무진행 절차
- 인수의향서 접수(정보이용료 납부 포함) 및 사전심사 → 예비실사자료 제공  $\rightarrow$  입찰서류 접수 및 평가  $\rightarrow$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rightarrow$  양해각서(MOU) 체결 → 정밀실사 수행 → 투자계약 체결

### ③기타 사항

- 1. 인수의향서 작성 안내문 및 관련 부속서류 양식은 매각주간사에 요청하여 수령함.
- 2. 인수의향서 접수 이후의 절차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인수의향서 접수 후 개
- 3. 인수의향서, 입찰서류 등 본건 M&A와 관련한 모든 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팩스, 전자메일 접수는 불가).
- 4.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제반 서류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5. 본 M&A 진행 절차, 인수의향서 접수기간 이후의 추가접수 여부, 적격투자자 및 우선협상 대상자 등의 선정 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 및 주간사의 고유권한으로, 잠재투자자 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6. 본 M&A를 위한 매각절차의 주요한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광주지방법 원 피산부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 및 회생회사 M&A 거래에서의 대한 민국 법원의 일반적인 실무 관행 등에 따름. 본 매각 공고에 따른 인수의향서 제출 요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청약의 권유가 아니며, 청약의 권 유는 인수의향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잠재투자자에게만 이루어짐.

#### 본 M&A 진행 관련 문의사항은 매각주간사인 일우회계법인(Tel: 010-8544-3170) 앞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조선 주식회사 M&A 매각주간사

일우회계법인